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8,4-7

4 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5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켈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6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 7 주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불쌍한 이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
-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
-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그를 한자리에 앉히시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2,1-8

사랑하는 그대여, 1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4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5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 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6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7 나는 이 증거의 선

포자와 사도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13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2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3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4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5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6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시오. 그리고 얼른 앓아 쉬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7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 섶이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빚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10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11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13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공지사항

▪ 9월 28일(주일) 미사 때 나눌 친교 음식 준비를 도와주실 분들은 붙어 있는 목록을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0월 5일(주일)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안내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 형제, 친지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미리 미사 예물 봉투를 작성하여 교무금함 또는 제대부 봉사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 보편지향기도 끝에 연도를, 봉헌 때 분향을 합니다. 미사 신청 지향은 게시판에 미사 당일 공지됩니다.

■ 우리들의 정성(09/14/2025)

▪ 미사 봉헌금: \$611.00 | ▪ 교무금: 김진국(9), 최정자(9-12)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3.3%)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 월별로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책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ptember 21, 2025 연중 제25주일

주님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지혜 3,9).

Those who trust in the LORD
shall abide with him in love(Wis 3,9).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평일미사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부터. 사제에게 요청하세요.

■ 전례 봉사자

	연중제25주일(09/21)	연중제25주일(09/28)	연중제26주일(10/05)
해설	정명호 미카엘	오미숙 말가리타	최낙현 미카엘
독서	장재원 곽동화	신창식 신영향	강웅일 강태순
복사	공지나 가브리엘라	신학생	황시윤 바오로
반주	최아영 아녜스	최아영 아녜스	한혜경 아녜스
제대	오미숙 말가리타	이명희 비비안나	공승윤 수산나